

기아차 광주공장 효과 '톡톡' 제약·음식업체 피해 불보듯

'한미 FTA' 광주·전남 산업계 득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대미 교역이 확대되면 수출 기업 위주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IT), 섬유 업체는 긍정적인 반면, 제약, 음식료 업체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대미 교역 규모는 73억2700만 달러에 달했다.

광주는 미국 수출액이 31억68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115억8100만 달러)의 28%를 차지했다. 전남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9억8700만 달러로 전체(304억1500만 달러)의 6.5%였다.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컸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 물량(선적 기준)이 총 29만3772대로, 이 중 10만3845대가 미국으로 수출 됐다. 전체 수출 물량의 65%를 차지한 최대 시장인 것이다. 차종별로는 쏘울이 7만1000여대, 스포티지R이 3만2000여대 수출됐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70%는 수출"이라며 "이 중 6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FTA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3대 메이커에 이미 자사 타이어가 장착되고 있어 FTA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차량의 수출이 늘면 금호타이어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해 미국 수출이 9억~1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28억 달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전 제품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때 1.5% 수준 관세가 부과돼, FTA 발효 후 무관세 적용을 받더라도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제약업체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 강화를 인정하는 내용이 비준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음식료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FTA로 인해 과일·채소·축산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가공식품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과와 스낵의 경우 8% 관세율이 인하되면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

다. 맥주의 경우에는 관세율 30%가 7년 내 철폐되면 수입 가격이 20% 가량 낮아져 수입 맥주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날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 전략 및 유망 품목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트엔진, 윤활유, 경유 등 석유제품과 완성차 및 부품, 타이어, 변환기 등이 전략품목으로 선정됐다. 합성수지, 펌프·밸브·화학기계·볼트 및 너트 등 기계류, 계측기, 음료, 철도차량 부품, 플라스틱 등 축산가공품은 유망품목으로 꼽혔다.

탄탄한 교포 시장과 최근 한류 붐을 타는 먹거리 수출과 최근 수요가 급증한 녹색기술 관련 품목도 FTA를 계기로 큰 폭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우수 수공예품 전시

(주)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는 광주 우수 수공예품 전시전을 23부터 27까지 5일간 백화점 1층에서 연다. 지난 15일 광주디자인센터와 '광주 수제공방 육성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 우수 수공예품의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제1회 광주 우수 공예품 전시전에는 리본 공예제품, 가죽 공예 제품, 한지 공예 작품, 수제커피, 수제비누, 뜨개 작품, 신생아용품 등 400개 이상의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T, 2G 서비스 12월 8일 중단 호남 9000여명 3G로 이동해야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가 다음달 8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9000여 가입자 등 전국 15만 가입자는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14일 동안 우선 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방법으로 현 2G 가입자에

망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폐지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면 방통위에 해당 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KT에 "2G를 폐지한 이후에도 지난 9월19일 방통위에 제출한 2G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라 KT의 3G로 전환하거나 타사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가입비 면제, 단말기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KT는 2G 가입자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7일간 3세대(3G) 단말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2G 번호를 6개월간 보관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X 20년	2조 5 1 1 2 7 8
		6조 1 8 2 8 5 3
2등	100,000,000	2조 5 1 1 2 7 7
		6조 1 8 2 8 5 2
3등	10,000,000	각조 8 5 1 1 1 4
4등	1,000,000	각조 5 2 4 3 0
5등	200,000	각조 2 9 5 7
6등	2,000	각조 2 1
		각조 8 1
7등	1,000	각조 2
		각조 5



감식초

지난 일요일, 남편과 옆집 시누이네 등 우리 동네 귀촌 부부 몇 쌍이 광진이네를 따라 나섰다. 바로 광진이네 감파기 울력에 나선 것이다. 사실 말이 울려이지 거의 다 따고 남은 것을 이사 온 이웃들에게 체험하게 한 것이 맛을 것이다. 하여간 아침도 굶고 나가 시간 지나도 배고픈 줄 모르는 걸 보면 딱 것만 먹은 것이 상당하고 먹고 남은 홍시들은 바구니에 담아 와 '감식초를 담겠다'며 분주했다.

직장 다니느라 집안일엔 통 관심 없던 옆집 시누이도 건넌왔다. 물론 감식초 담는 법을 묻기 위해서다. 사실 내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이미 담아 본 선배(?)로서 아는 대로 몇 가지 조언을 해 준다.

먼저 '주변초음법' (내가 만든 말들이니 사전을 뒤져도 소용없다) 술은 시원한 곳, 식초는 따뜻한 곳에 둔다는 말이다. 원리는 물론 간단하다. 초산은 20도가 넘어야 발효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예전 우리들의 어머니가 부뚜막 위에 식초병을 얹어 둔 것을 기억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바로 부뚜막의 훈기를 받자는 뜻이다.

두 번째로 '입구소통' 식초 향아리는 초산균이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통하게 해 줘야 한다. 혹시 식초 병 입구에 솔가지를 꽂아 둔 것도 기억나시는가? 별래를 막고 공기는 통하게 하며 술의 향까지 배게 한다니 일석삼조의 매개인 셈이다. 하지만 구할 수 없다면 부직포나 손수건 같은 천으로 막아도 괜찮다.

세 번째로 '내용철부' 발효과정에서 가스도 차고 부풀어 오르니 넘치지 않게 하려면 70%만 채우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일년관망' 발효란 느린 움직임이다. 식초를 만들어 둔 항아리에 조금씩 흔들고 맛을 보며 기다려 보자. 나 역시 처음 담을 때만 해도 하얗게 곰팡이 같은 것이 끼기 시작하니 '버렸나 보다' 생각하고 싹 걷어내어 기껏 만들어진 초산균을 몰아내기도 했고 초파리가 생기자 초초인줄 모르고 안절부절 '술을 부어 놓을까' 조바심을 친 적도 있었다. 물론 지금도 배워가는 과정이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흰 곰팡이 같은 것들이 초산균이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약간의 편법 역시 배웠는데 초산 발효가 불안하다 싶을 때엔 식초를 더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사

만들며 지켜보며 먹어보는 맛
음식은 영혼 살찌우는 문화다



실도 알았다. 물론 처음부터 감에 누룩을 섞어 1년 발효 시키면 풍미가 깊어진다 사실도 배웠다. 하여간 어찌다 보니 막걸리 식초에 와인 식초, 그리고 감식초까지 늘어나고 요즘 들락거리며 향을 맡아 보니 잘 알고 있는지 냄새가 점점 순해져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담는 요령 간단히 소개하겠다. 감은 물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발효가 빠르는데 단단한 것이라면 바두었다가 물러질 때 담는 것이 좋다. 유기농 감이라면 되도록 씻지 말고 닦아 사용하고 씻었다면 물기를 잘 닦고 그릇 속에는 필수다. 나의 경우 뜨거운 물에 한번 그리고 항아리 안에서 풍미를 태워 한번 더 하는데 그래야 실패가 적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조금 미안해지는 게 몇 번 담아 보질 너무 부풀었다 싶어 부끄럽다. 하지만 이해 해주시리라 믿는다. 나 역시 식초처럼 이제 막 익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편안한 것은 독자들이 이미 나의 이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웃에게는 나의 실수도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경험을 나누며 행복하다. 그리고 보니 이웃집 감 몇 덩어리덕분에 내 사는 곳에 느긋한 흐름이 생기더니 오늘의 소통으로 이어진다. 감식초가 비타민C가 많으니 노화나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 등은 하지 않았다. 아마 만들면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먹으면서 행복할 '제 3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하여간 그것은 맛이 아니다. 즐거움이고 문화이며 그런 음식은 영혼을 살찌운다.

/*담양명의 열 두 달 실험' 저자 jazzchants@hanmail.net

tip * 열민 토폴라: 21세기는 제 3의 맛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제 1의 맛은 소금 맛이고, 제2의 맛은 소스 맛이고, 제3의 맛은 발효의 맛이다.

최저가낙찰제 '200억'으로 절충될 듯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절충안'이 마련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대안

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는 지난 18일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200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사실상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2013 아시아사이언스파크회의 광주서 열린다

미래융합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2013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 연례회의'를 광주가 유치했다.

23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에 따르면 ASPA는 지난 22일 이란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2013년 연례회의 개최 장소로 광주를 선정했다.

유 원장은 개최도시 선정에 앞서 발제를 통해 2013년 ASPA 연례회의

의 주제로 '미래산업과 융합'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기존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융합산업을 위한 아시아 회원국 간 상호교류 촉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설립된 ASPA는 34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15차례 연례회의 가운데 한국에서는 대구와 경기도에서 1차례씩 개최된 바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783.10 (-43.18)
코스닥지수	490.49 (-15.20)
금리 (국고채 3년)	3.36% (-0.03)
원·달러 환율	1152.00원 (+6.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2월 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